

졸업축사

사설

책장 속 낙엽처럼
빛을 잃지 않는 오늘이 되길

졸업식 아침이면 학내 곳곳에 ‘사진 촬영’ 팻말과 커다란 카메라를 둘러맨 사진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졸업을 맞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아마 다시 올 일 없을 학과 행정실에 들러 졸업장과 가운을 받아들고 모교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저마다 사진을 찍는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인생은 한 번 뿐이고 시간은 불가역적이니 우리는 사진으로나마 찰나의 순간을 간직하려고 한다. 곳곳에서 셀카봉이 솟아오른다. 장롱 속에서 잠자던 무거운 카메라가 오랜만에 제 실력을 뽐낸다. 아직은 출지만 렌즈를 향해 한껏 웃어본다. 오늘은 축하하고 축하받는 모습을 남기기에라도 짧은 하루이기에.

제65회 전기학위수여식을 맞은 졸업생이 어른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간 캠퍼스는, 이제 사진 속 배경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에 자리 잡을 것이다. 동시에 이 추억의 한 페이지는 사회인이 되어 펼쳐는 첫 페이지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받아들었던 졸업장과 달리 경희대학교라는 이름은 앞으로 걸어갈 긴긴 여정의 많은 장면에 함께할 것이다. 그대들이 경희의 이름을 꺼낼 일이 있을 때 마다 사진 속에 들어찬 학교의 풍경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모르겠다. 만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성에 차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서 논할 주제는 아닌 듯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제 ‘학생’이 아닌 ‘동문’의 이름으로 경희와 그대들이 같이 걸어간다는 점이다. 경희는 여러분이 만드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기억되며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경희의 이름을 대표한다. 작은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걷다가 지칠 때 오늘의 사진을 꺼내보고 경희의 이름을 되돌아보며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너른 세상에 나와 자신의 20대를 숙성시킨 캠퍼스라는 장소가 언제까지고 그대들의 책갈피였으면 한다. 책장 속에 끼워둔 낙엽이 빛을 잃지 않고 그 장소에서 다시 펼쳐 보일 날을 기다리듯 말이다.

사진과 낙엽 책갈피는 모두 욕심의 발현인지도 모르겠다. 스쳐 지나가면 바스라지는 한 순간을 소중히 보관해 언제고 꺼내보고자 하는 욕심 말이다. 학교에 남는 자로서는 경희에서 만든 추억과 배움이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기뻐 뿐이다. 캠퍼스 밖은 모진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임을 알기에, 더더욱 떠나보내는 마음이 애뜻하다.

그래서 추억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진을 남기기 좋은 캠퍼스 안 사진 포인트를 골라봤다.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꾸었을 때 바꿨던 대학생활을 정리했다. 새내기 동문이 된 여러분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몇 가지 혜택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오늘을 맞이한 4,591명의 이름을 아로새겼다. 경희대와 대학주보가 존재하는 한 그대들의 이름은 우리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글로는 다할 수 없는 축하를 보낸다. 그대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캠퍼스에서 보냈던 20대의 날들처럼 빛나기를 축복한다. 그리하여 오늘 카메라를 바라보며 지었던 웃음을 매일매일 지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졸업생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축사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 윤단비



삶이 흔들릴때 돌아와 쉴 수 있는 경희

오늘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느 날과는 사뭇 다른 날입니다. 저 역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했기에 졸업식을 맞이한 날들을 떠올려봅니다. 과제와 논문으로 쉴 수 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고, 햇빛 좋은 날이면 모두 강의실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본관놀이를 즐겼습니다. 캠퍼스 안을 마음껏 거닐며 학문과 삶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북적거리는 회기동은 골목골목마다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젊음의 열

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춘이라는 불길 속에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공분야의 불안한 미래와 싸우며 실패할까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삶은 지독한 늪처럼 저희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 실천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경희대학교는 이러한 열정과 배움의 한가운데에 서있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든 학교를 떠나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속에서, 우리 경희대학교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희에서의 배움은 삶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경희대학교에서 보낼 수 있던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에게도 경희대학교에서의 경험이 값진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의 전당을 넘어 그리운 바람이 우리를 이야기 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이곳, 경희대학교 정사에서 저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축사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수현

걱정하는 사회 속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

안녕하세요.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제33대 총학생회장 김수현입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한명의 원우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축하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졸업을 맞이하시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원우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문득 저의 졸업식이 떠오릅니다. 졸업식의 순간은 매우 짧았지만, 여러 해 동안 몸담았던 교정을 떠난다는 여운이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지난 대학생활은 어떠셨습

니까?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즐거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목표한 바를 성취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은 성과와 무관하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

에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감히 그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희대학교에서 배운 본질적 가치와 진리 탐구의 정신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의 빛과 스승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정신을 발판삼아 앞으로 닦칠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축사
국제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장 김효형

어려운 선택들이 모인 오늘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정든 학교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만 2천 경희대 재학생들을 대신하여 졸업생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축하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별을 하는 이 자리가 자칫 슬픔과 아쉬움으로만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풀 꺾인 추위가 분위기를 한결 밝게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식에선 사회 유명인사가 졸업을 맞은 대학생을 위해 축하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를 흔히 ‘마지막 수업’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옥같은 수많은 축사가 있지만, 저는 특히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남긴 축사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We are our choices. Especially the hard ones.)”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리함이나 예술적이거나 한 재능들은 어찌 보면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죠. 재학생에서 동문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운 ‘선택’을 거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이 했던 ‘선택’들이 모여 의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재학생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훗날 동문이 될 재학생들의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